

대학생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임 문 주

가톨릭대학교 / 석사졸업생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4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21.0 및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은폐와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자기은폐도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그리고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를 정서적 지지가 조절하였다. 넷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회불안, 정서적 지지

* 본 연구는 임문주(2018)의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 02-2164-4271, E-mail : kyu@catholic.ac.kr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상태가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면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로 진단을 받는다(Heimberg, Holt, Schneier, Spitzer, & Liebowitz, 1993). 사회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으로도 불리며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이 지켜보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상황에서 본인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중 원치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까 두려워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장애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보건복지부(2017)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포증의 평생유병률이 1.6%이고 만 18~29세의 1%가 한 번 이상 사회공포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22%가 사회불안을 경험하며(Strahan, 2003), 대학생의 사회불안 발생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5~6%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ssau, Conradt, & Petermann, 2000). 대학 생활은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므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해야 하는 다양한 환경을 직면하게 되는 등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대학에서는 스스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며 발표를 통해 평가받는 상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높은 사회불안 발생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Gilboa-Schechtman, Franklin, & Foa, 2000). 따라서 사회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상담 장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지행동적 모델에 따르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수행에서 무능하게 평가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므로 사회불안의 핵심요인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을 강조한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부적절하고 창피하게 보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이정윤, 최정훈, 1994).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상을 구성하는데,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정보와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불안이 가중되어 자신의 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형성한다(Rapee, & Heimberg, 1997; Weeks, Heimberg, Rodebaugh, & Norton, 2008b).

최근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positive evaluation)도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성으로 중요하며 두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개념임이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졌다(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a; Weeks, Jakatdar, & Heimberg, 2010).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평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

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드러나거나 혹은 타인의 관심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다(Gilbert, 2001; Trower, Gilbert, & Sherling, 1990).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Heimberg, & Becker, 2002)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인지하여 피드백의 정확성이 낮았다(Weeks et al. 2008b). 관련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사회적 상황 시 긍정적 평가를 받아도 불편감을 느껴서 긍정적 경험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Weeks 등(2010)의 연구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에 대한 상태 불안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끔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Wang, Hsu, Chiu, Liang(2012)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면서 보다 많이 사회불안을 설명하였지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과는 다르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발표상황에서 유의미한 심박수의 증가를 보였다(Weeks, & Zoccola, 2015). 또한 Weeks 등(2008a)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 모두 상관이 있음을 보

고하였고, Howe(2014)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시험불안, 대중연설불안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세 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었지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만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연관성이 크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 결과를 예측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두 개념을 독립적인 요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각각 개별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Weeks et al. 2008a; Fergus et al. 2009). 그리고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과 기대를 지나치게 높게 측정하여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점차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등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동, 즉 자기를 은폐하는 경향을 점점 강하게 나타낸다고 하였다(Flett, & Hewitt, 2002; Frost, & Steketee, 1997). 그리고 자기은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여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이은샘, 2015), 자신의 부정적 정보를 개방하여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보고되었다(신지은, 이동귀, 2011). 이러한 두려움은 대인관계 접근성을 약화시켜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Alden, & Taylor, 2004), 결국 이들은 사회적 장면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자기은폐의 성향이 더

욱 강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도 제시되어 있는데,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에서 은폐적인 성향들과 사회불안을 연구한 사례(백수현, 이영순, 2013; Flett, Greene, & Hewit 2004; Hewit et al. 2003)와 불완전한 은폐-행동과 불완전한 은폐-언어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한가희, 2016), 자기은폐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강초롱, 2017; 백가은, 2018)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더욱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은폐 성향을 강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화된 자기은폐 성향은 사회불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에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개인의 인지적 내적요소라면, 사회적 지지는 이와 관련된 환경적이며 외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원으로 의미 있는 타인을 통해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다(Procidano, & Heller, 1983). 이는 타인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Caplan, 1974)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이해, 돌봄, 칭찬과 관련된 지지를 제공하여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삶의 만족과 적응성을 높여준다(Cohen, & Hoberman, 1983; Sarason et al. 1991). 가정과 학교의 또래 관계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발생 상황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의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Davis, Cohen, & Apolinsky, 2005).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등의 각종 부정적 요인들이 개인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로 보고되어 왔다(Cohen, & Wills, 1985). 따라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부정적인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상이해질 수 있음(박지연, 양난미, 2014)을 고려해볼 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는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모습을 은폐하거나 정서를 단절한다(김유리, 김희정, 2013). 그리하여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 위안을 얻기 위해 부정적 평가와 거절의 위협이 낮은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충분한 지지와 깊이 있는 관계, 낮은 갈등수준을 경험한다면 사회불안의 수준이 조절될 수 있다(김화영, 2012)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가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정적 심리를 완화시켜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므로(김종운, 김지현, 2013; 이경완, 문인호, 박숙경, 2013)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은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및 상황을 은폐하려는 개인의 행동 경향성과 사회불안의 정서적 적응에 연구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여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사회불안을 낮춘다는 연구(최영숙, 김정민, 2007)를 기반으로 ‘정서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은폐와 친구의 정서적 지지가 부적인 상관관계(허준경, 2014)임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된다. 즉,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자기은폐의 행동적 경향을 나타낼 때 외부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는 친구의 지지를 더 필요로 하는 시점(Prezza, & Pacilli, 2002)이므로 대학생의 정서적 지지의 대상은 ‘친구’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최근에 알려진 특성이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 혹은 그러한 경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갖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결국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거라 예상하므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란 견해(Wallace, & Alden, 1997)도 있다. 그리하여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다른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며, 어떠한 기제와 연결되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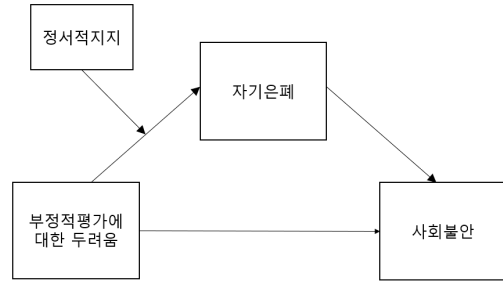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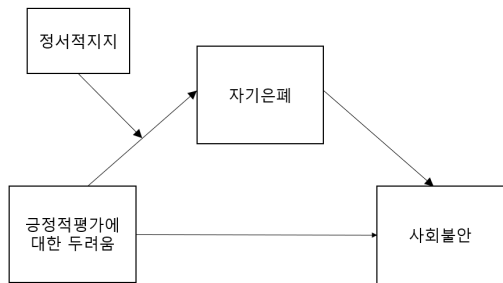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는지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으로 발달하게 되는 경로를 자기은폐가 매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특히 친구에 의한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친구에 의한 정서적 지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러한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자기은폐가 매개할 것이다.

둘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를 정서적 지지가 조절할 것이다. 셋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회불안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대학생들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세~29세 사이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연구대상자 모집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설문시작 전 연구 동의서를 첫 페이지에 게재하여 동의를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 430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하고 총 42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남학생이 192명(45.5%), 여학생이 230명(54.5%)이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19세~24세 사이가 347명(8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4학년이 183명(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127명(30.1%), 2학년이 84명(19.9%), 1학년이 28명(6.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39명(56.6%), 경기지역 146명(34.6%), 인천지역 37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대학생들이 대인 간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고자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것을 김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19문항(예: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자기 진술문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번과 10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자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한 30문항을 Leary(1983)가 전체점수와 .50 이상 상관을 나타낸 12문항(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된다.”)을 뽑아 단축형으로 제작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일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orean Version of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K-FPES)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자 Weeks et al. (2008a)이 제작한 것을 박서정, 오강섭, 이정애(201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10문항(예: “다른 사람에게 내 재능이 좋은 인상을 받으리라 생각해도 그들에게 내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 불편하다.”)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의 10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다.

자기은폐 척도(Self-Concealment Scale: SCS)

Larson과 Chastain(1990)이 제작한 것을 장진이(2000)가 번안과 타당화한 척도이다. 개인적인 은폐에 대한 5문항, 일반적인 비밀유지에 대한 5문항으로 총 10문항(예: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중요한 비밀이 있다.”)이 있다.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자기은폐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다.

정서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 II)

정서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에서 정서적 지지문항을 사용했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 7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측면의 정서적 지지 문항은 “평소에 주위사람들을 어

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정서적 지지 7문항만 사용하여 ‘주위사람들’ 문구를 ‘친구’로 한정지어 조사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의 친구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가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지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s)는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및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여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에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PROCESS 7번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1

표 1.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N = 422)

	1	2	3	4	5
1. 사회불안	1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7***	1			
3.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1***	.31***	1		
4. 자기은폐	.60***	.51***	.46***	1	
5. 정서적 지지	-.38***	-.15*	-.28***	-.30***	1
평균	56.47	38.59	46.86	31.23	25.50
표준편차	13.51	7.47	13.29	8.10	4.75
왜도	-0.07	-0.10	0.06	-0.15	-0.42
첨도	-0.11	0.20	-0.46	-0.20	0.75

* $p < .05$, ** $p < .01$, *** $p < .001$.

에 제시하였고, 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67, p < .001$; $r = .61, p < .001$; $r = .60, p < .001$; $r = -.38, p < .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31, p < .001$; $r = .51, p < .001$; $r = -.15, p < .05$). 그리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은폐 및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각각 순서대로 $r = .46, p < .001$; $r = -.28, p < .001$), 자기은폐는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 = -.30, p < .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이나 자기은폐와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적 지지와의 관계에서는 두 변인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한

편,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가 매개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검증 분석절차 방법을 사용해 진행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67,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5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 결과에서는 부정적 평

표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1.22	0.07	.67	18.66***	.45	348.20***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0.55	0.05	.51	12.18***	.26	148.41***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0.90	0.07	.50	12.89***	.54	249.00***
	자기은폐		0.58	0.06	.35	9.08***		

* $p < .05$, ** $p < .01$, *** $p < .001$.

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35$,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자기은폐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였고($\beta = .50$,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54%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1단계 분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6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긍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은폐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6$,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 결과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41$,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자기은폐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였고($\beta = .43$,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51%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표 3.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0.62	0.04	.61	15.88***	.38	252.31***
2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0.28	0.03	.46	10.59***	.21	112.09***
3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0.43	0.04	.43	11.02***	.51	214.05***
	자기은폐		0.68	0.07	.41	10.50***		

* $p < .05$, ** $p < .01$, *** $p < .001$.

실시하였다. 이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점수를 사용하였고, 이렇게 평균중심화된 두 점수의 곱을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는 자기은폐 전체 변량의 31%를 설명하였고($F=94.90, p<.001$), 2단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결과, 자기은폐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31%로 1단계에 비해 설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Delta R^2=.00$). 2단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 ns$).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는 자기은폐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하였고($F=66.95, p<.001$), 2단계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결과, 자기은폐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25%로 1단계에 비해 1.0%의 설명량이 증가되었다($\Delta R^2=.01, p<.001$). 2단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보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0, p<.05$). 이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즉,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나온 각 예측변인별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상수를 바탕으로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 평균점수와 평균점

표 4.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B	S.E.	β	t	R ²	ΔR^2
		(상수)	27.65	2.61		10.60***		
1 단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25	0.03	.41	9.18***	.24		
	정서적 지지	-0.32	0.08	-.19	-4.17***			
		(상수)	28.16	2.60		10.82***		.01
2 단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24	0.03	.40	8.92***			
	정서적 지지	-0.31	0.08	-.18	-4.17***	.25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정서적 지지	0.01	0.01	.10	2.39*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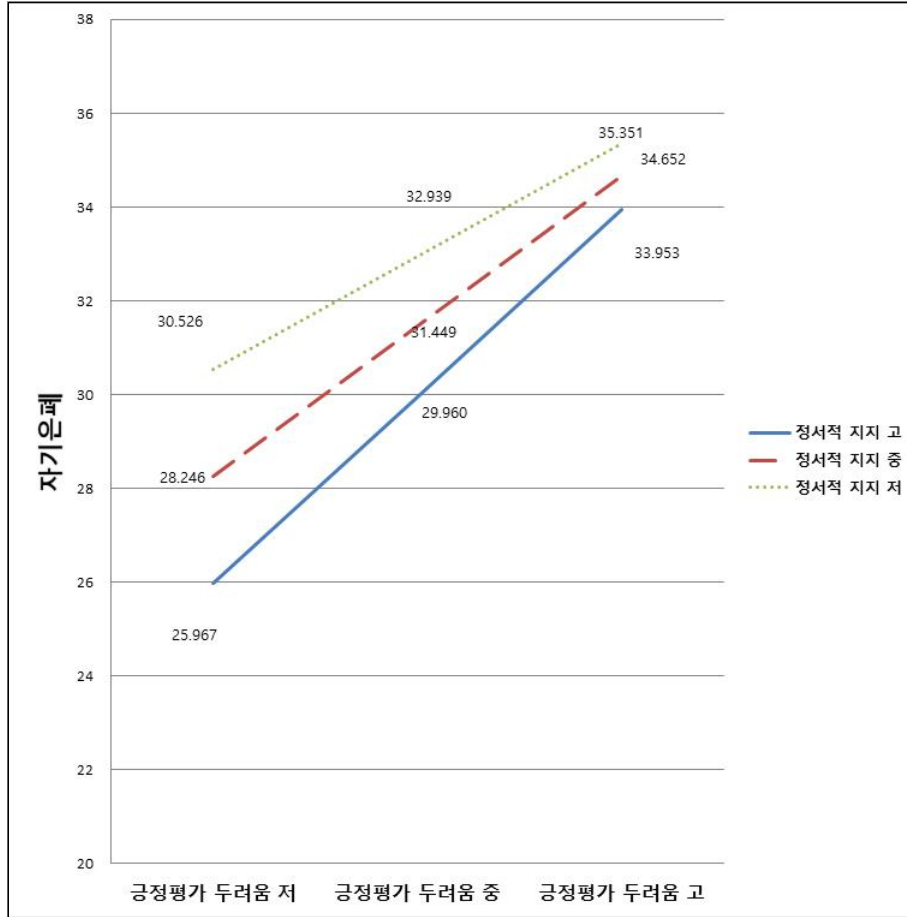


그림 3.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표 5. 정서적 지지 수준별 기울기 테스트 결과

집단	<i>B</i>	<i>S.E.</i>	β	<i>t</i>	<i>R</i> ²
정서적 지지 저	0.157	0.094	.231	1.679	.053
정서적 지지 중	0.255	0.030	.434	8.593***	.188
정서적 지지 고	0.360	0.075	.569	4.796***	.324

* $p < .05$, ** $p < .01$, *** $p < .001$.

수 ± 1 표준편차 점수를 각각 정서적 지지의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정

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증가에 따른 자기은폐 수준이 더욱 증가하

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의 수준별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Aikent와 West(1991)의 제시에 따라 조절변인의 평균점수와 평균점수 ± 1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는 평균점수, 평균점수 ± 1 표준편차 점수 세 조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변인이 유의하게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7번 모형 분석에서 제공되는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표 7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경유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서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 및 상한값이 각각 .001과 .018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절변인인 정서적 지지의 평균점수와 평균점수 ± 1 표준편차 점수의 세 조건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과 추정치들을 확인하였고, 표 8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경유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정서적 지지 세 가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불안에 미치는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의 세 가지 수준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조절변인	B	S.E.	β	t	LLCI(B)	ULCI(B)
M-1SD	20.758	0.182	0.039	.298	4.702***	0.106	0.258
M	25.505	0.241	0.027	.395	8.926***	0.188	0.294
M+1SD	30.252	0.301	0.035	.493	8.662***	0.232	0.369

LLCI(B), ULCI(B) =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상한값.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인	조절변인	조절된 매개 지수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지지	0.009	0.004	0.001	0.018	

표 8. 조절효과의 수준에 따른 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정서적 지지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LLCI	ULCI
<i>M-1SD</i>	20.758	0.123	0.034	0.065	0.195
<i>M</i>	25.505	0.163	0.027	0.115	0.222
<i>M+1SD</i>	30.252	0.204	0.033	0.143	0.273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정적 및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친구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및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은폐와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자기은폐도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들(김성주, 이영순, 2013; 김화영, 2012; 이강아, 홍혜영, 2013; 전영주, 박기환, 2011; Fergus et al. 2009; Heimberg, Hope, Rapee, & Bruch, 1988; Weeks et al.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과 정적 상관이며(한가희, 2016)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은폐와 정적상관임을 보인 연구(허준경, 2014)와도 일

치한다. 그리고 자기은폐와 사회불안이 정적 상관임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은폐적인 성향들과 사회불안이 정적상관임을 보인 연구들(백수현, 이영순, 2013; Flett, et al, 2004; Hewitt et al, 2003)과 자기은폐와 사회불안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강초롱, 2017; 곽새롬, 2016)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정서적 지지가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이진숙, 현명호, 2012; 박지연, 양난미, 2014), 자기은폐와 정서적 지지가 부적 상관관계(허준경, 2014)라는 연구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

둘째,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완전함 은폐-행동적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연구(한가희, 2016)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언어나 행동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므로 사회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apee, & Abbott, 2007; Rapee, & Heimberg, 1997).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

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전영주, 박기환, 2011; Weeks et al. 2010)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는 등의 자기은폐적인 안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Arkin, Lake, & Baumgardner, 1986; Clark, & Wells, 1995). 한편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Alden, & Taylor, 2004)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Ichijama et al. 1993) 사회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자기은폐 수준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은폐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를 정서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증가에 따른 자기은폐 수준도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정서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 있을 때, 그가 가진 두려움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인지 혹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인지에 따라 자기은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평가를 받는 당시에는 비록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하

라도 미래 시점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가능성이 높다(Alden, & Wallace, 1995).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두 종류의 두려움은 단지 시점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속될 수 있다(Wallace, & Alden, 1997). 하지만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이와는 다른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위계의 동등성과 관련이 있으며 Gilbert(2001)는 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 하는 것’ 혹은 ‘지위 상승’이 타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지배적인 구성원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해 본다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친구들에게 이러한 부정적 도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나,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친구들로 하여금 경쟁의식이나 질투 등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 친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높아질 수 있다. Gilbert(2001)의 견해는 앞서 언급한 Wallace와 Alden(1997)에 비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더욱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역동을 고려하고 있는 바,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개념화한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한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자신의 부적절한 모습을 은폐하는 피상적 관계를 맺어

정서적 단절을 심화할 수 있다(김유리, 김희정, 2013). 그리고 정서적 단절로 인한 좌절을 피하고자 타인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Cassidy, 2000;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자기은폐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의 결과가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 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상을 바탕으로 자기상 역시 부정적으로 형성한다(Weeks et al. 2008b). 그리고 타인의 기대가 너무 높아 결국에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인해 정서적 지지를 받더라도 두려움이 조절되지 않아 자기은폐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경유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역할(Cohen, & Wills, 1985; Holt, & Espelage, 2005)을 하고, 본 연구변인들 간 상관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 내의 정서적 지지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회불안과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을 토대로 정서적 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증가에 따른 자기은폐 수준이 증가하였고, 사회불안에 미치는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인지적 편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이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의 부족 및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인하여 긍정적 경험의 의미를 격하시켜 결국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Alden, & Wallace, 1995)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Alden, Taylor, Mellings와 Laposa (2008)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의 해석편향을 도출하였는데 첫째로, 긍정적 결과로 인해 타인의 기대가 높아지지만 자신은 변하기 어려워 미래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긍정적인 사건이 결국 부정적인 사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예기불안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예의 바르므로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준다고 해석하여 결국 주변에서 긍정 평가를 받아도 가치절하 하는 방식으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김지윤, 이훈진, 박승진, 2018). 또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을 받은 후 불편감이 커지는데 이는 피드백을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Weeks et al. 2008b). 국내의 전영주와 박기환(2011)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가 절하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이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고 파국화적 사고, 반추, 자기 비난 등 자기평가에 신경을 쓴다(김성주, 이영순, 2013).

그리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회피 행동과 사회불안이 나타난다(Rapee, & Abbott, 2007; Rapee, & Heimberg, 1997)는 기존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 피드백 수용에 대한 불편함과 수행불안 간을 매개한다는 연구(Weeks et al. 2008a)를 토대로,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부정적 정보와 관련된 것은 숨기려는 자기은폐 태도가 나타나는 결과를 본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은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불안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지 않거나 감추려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불안을 더욱 느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자기은폐 경향이 높을수록 자기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하정희, 2010; Ceprda-Benito, & Short, 1998) 이러한 은폐와 회피행동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발표나 수행의 상황에서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평가에 민감하며 경쟁의 구도 속에서 과도한 인정 욕구로 인해 사회불안을 경험하기 더 쉬울 수 있다(장하연, 조용래, 2012).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기은폐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사회불안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관계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부정적 경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긍정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해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측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이라고 주장한 Wallace와 Alden (1997)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독립적인 특성으로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의 기대가 크고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감을 얻기 보다는 그러한 기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은폐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달리 정서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은폐 및 사회불안에 대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포함하는 사회불안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에 포함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으로 발달하게 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중 불완전한 은폐-행동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와 사회불안 간의 관

계를 이해하려는 연구(한가희, 2016)가 있었거나 자기은폐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연구(강초롱, 2017; 백가은, 2018)한 사례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변인 간의 통합적인 이해는 사회불안이 발달하게 되는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행동적 측면에 속하는 자기은폐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결과는 자기은폐가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 숨겨진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부담을 느껴서 상담 장면에서 찾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내담자들은 만족스러운 상담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Kelly, & Achter, 1995). 또한 상담에 자발적으로 오더라도 자기 개방을 제한하므로 상담자와의 치료동맹 형성이 어렵거나,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게 되어 깊이 있는 치료 작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김은혜, 2014). 그러나 자기은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연구(양대희, 2010, Kelly & Achter, 1995)도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의 치료동맹을 맺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회불안을 가진 대학생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서 명명으로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며(안다영, 201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차려 기술하는 것이 높을 때 사회공포가 낮아진다(홍영근, 2017)는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은폐보다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여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은폐적인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면, 내담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 결과의 의의가 있겠다.

셋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인지적 특성으로서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라는 행동적 요인을 통해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정서적 지지라는 정서적 요인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 정서, 행동적 연구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서적 지지가 조절이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과 연결된 연구들은 많았지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자기은폐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의 행동적 특성에 주목하여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자기은폐를 통해 사회불안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사회불안 치료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정서적 지지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자기은폐를 많이 하게 되어 사회불안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내담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증가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보다는 긍정적 평가마저도 부정적 평가와 연결 짓는 부적응적 인지적 패턴이나 혹은 긍정적 피드백 이후 자기를 은폐하려는 태도와 같은 행동적 패턴

에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담자의 사회 불안 수준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을 상담할 때 그들의 기준이나 목표를 점검하여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주로 부정적 인지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편감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을 주호소로 가진 내담자와 작업하는 경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불편감도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그에 초점을 둔 치료적 고려가 이루어져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마음챙김의 하위 요인인 비판단과 수용이 사회공포를 낮춘다(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Roemer et al. 2009)는 연구에 따라 후속 연구나 상담에 외부적 요소인 정서적 지지 외에 내부적 요소인 마음챙김과 수용을 통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아동, 청소년기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자기주장 및 사회적 행동을 많이 요구받고(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2011)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는(이소연, 오인수, 2015) 등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인지적 요인과 사회불안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김민선, 서영석, 2009; Clark, & Wells, 1995)에 따라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을 겪는 대학생들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겪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사회불안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실제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요인을 가진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상장면에서 실제로 사회불안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불안을 진단 받은 사람에게 이 연구를 적용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지지 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공포와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 내적 경험에 압도당하지 않고 즉각적/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Baer, Smith, & Allen, 2004) 비자동성과 관찰된 현상을 말로 표현하고 명명하는(Baer et al, 2004) 기술이 조절효과가 있다(홍영근, 2017)는 연구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마음챙김을 지지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2011). 대학생의 사회 불안,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정서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연구논총*, 32(2), 1-27.
- 강초롱 (2017). 사회불안과 우울의 관계: 자기은폐와 자기-타인 표상 차이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새롬 (2016).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사건의 긍정결과 가치절하와 부정결과 파국화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19-1938.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김희정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14(5), 3041-3064.
- 김은혜 (2014). 불안정 성인 애착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 경험, 자기불일치, 수치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3(9), 248-259.
- 김지윤, 이훈진, 박승진 (2018).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1), 157-186.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2012).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재확인 추구의 매개효과 및 관계의 질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서정, 오강섭, 이정애 (2010). 한국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PE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임상*, 29(1), 205-221.
- 박지연,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8.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가은 (2018). 사회불안과 우울: 편집사고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수현, 이영순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385-400.
- 보건복지부 (2017).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9138에서 검색.
- 신지은, 이동귀 (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안다영 (2017). 정서명명(Affect labeling)이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의 발표불안 감소에

-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대회 (2010).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과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지지,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강아, 홍혜영 (2013).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201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14(2), 15-27
- 이소연, 오인수 (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가 대학생의 발표 불안에 미치는 관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부정적 평가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8), 53-75.
- 이은샘 (2015). 자기은폐 성향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분석: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SASB) 모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최정훈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4), 251-264.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장진이 (2000). 자기은폐와 정서 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하연, 조용래 (201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신념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사회적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학회, 12(3), 299-313.
- 전영주, 박기환 (201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학회, 11(2), 59-73.
- 최영숙, 김정민 (2007).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6(2), 103-114.
- 하정희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 한가희 (2016).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 및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준경 (2014). 사회부과완벽주의, 자기개방 및 자기은폐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근 (201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공포와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53-1075.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den, L. E., & Taylor, C. T. (2004). Interpersonal

- processes in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857-882.
- Alden, L. E., Taylor, C. T., Mellings, T. M., & Laposa, J. M. (2008). Social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social ev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4), 577-590.
- Alden, L. E., & Wallace, S. T. (1995). Social phobia and social appraisal i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social interac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5), 497-50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kin, R. M., Lake, E. A., & Baumgardner, A. H. (1986). Shyness and self-presentation. In *Shyness* (pp. 189-203). Springer US.
- Baer, R. A., Smith, G. T., & Allen, K. B. (2004). Assessment of mindfulness by self-report: The kentucky inventor of mindfulness skills. *Assessment*, 11(3), 191-20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assidy, J.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11-131.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professional help see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58-64.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68), 22-23.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avis, C., Cohen, R., & Apolinsky, F. (2005). Providing social support to cancer patients: a look at alternative methods.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3(1), 75-85.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0). Frequency, comorbidit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of anxiety disorders in germa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4(3), 263-279.
- Fergus, T. A., Valentiner, D. P., McGrath, P. B., Stephenson, K., Gier, S., & Jencius, S. (2009).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8), 1177-1183.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Flett, G. L., Greene, A., & Hewitt, P. L. (200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anxiety sensitivity.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2(1), 39-57.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 Steketee, G. (1997). Perfectionism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4), 291-296.
- Gilbert, P. (2001). Evolu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attraction, social competition, and social hierarch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4), 723-751.
- Gilboa-Schechtman, E., Franklin, M. E., & Foa, E. B. (2000). Anticipated reactions to social events: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with generalized social phobia,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nonanxious contro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31-746.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 and clinical strategies*.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Holt, C. S., Schneier, F. R., Spitzer, R. L., & Liebowitz, M. R. (1993). The issue of subtypes in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3), 249-269.
- Heimberg, R. G., Hope, D. A., Rapee, R. M., & Bruch, M. A. (1988). The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with social phobic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5), 407-410.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olt, M. K., & Espelage, D. L. (2005).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betw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depression/anxiety among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34(3), 309-328.
- Howe, J., (2014).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across social evaluative situations. Eastern Illinois University, Masters Theses.
- Ichiyama, M. A., Colbert, D., Laramore, H., Heim, M., Carone, K., & Schmidt, J. (1993). Self-concealment and correlates of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7(4), 55-68.
- Kashdan, T. B., Barrios, V., Forsyth, J. P., & Steger, M. F.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9), 1301-1320.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40-46.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Lopez, F. G., Mitchell, P., Gormley, B. (200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0-467.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Prezza, M., & Pacilli, M. G. (2002).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 and friends and sever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2(6), 422-429.
- Procidano, M. E.,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1-24.
- Rapee, R. M., & Abbott, M. J. (2007). Modelling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variables during and following public speaking in participants with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2), 2977-2989.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oemer, L., Lee, J. K., Salters-Pedneault, K., Erisman, S. M., Orsillo, S. M., & Mennin, D. S. (2009). Mindfulness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reliminary Evidence for Independent and Overlapping Contributions. *Behaviour Therapy*, 40(2), 142-154.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73-287.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 347-366.
- Trower, P., Gilbert, P., Sherling, G. (1990). *Social anxiety, evolution, and self-presentation*. In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11-45). Springer US.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16-524.
- Wang, W., Hsu, W., Chiu, Y., & Liang, C. (2012). The hierarchical model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depression: The critical roles of fears of evalu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6(1), 215-22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eks, J. W., Heimberg, R. G., & Rodebaugh, T. L. (2008a).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1), 44-55.
- Weeks, J. W., Heimberg, R. G., Rodebaugh, T. L. & Norton, P. J. (2008b).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3), 386-400.

Weeks, J. W., Jakatdar, T. A., & Heimberg, R. G. (2010). Comparing and contrasting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as facets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68-94.

Weeks, J. W., & Zoccola, P. M. (2015). "Having the heart to be evaluat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on emotional and cardiovascular responses to social threa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6*, 115-126.

원 고 접 수 일 : 2019. 07.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13

게 재 결 정 일 : 2019. 12. 20

The Influence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and Self-Concealment on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Support

Moon-ju Lim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degree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influence of fear of negative/positive evaluation and self-concealment on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422 college students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who completed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concealment and social anxiety. Self-conceal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However, emotional support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fear of negative/positive evaluation, self-concealment, and social anxiety. Additionally, self-conceal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Whereas, emotion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elf-concealment. Finally, the indirect effect of fear of positive evaluation through self-concealment on social anxiety was moderated by emotional suppor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

Key words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elf-concealment, social anxiety, emotional support